

농어촌공사 영주·봉화지사, 영농철 앞두고 물 관리 점검

오공환 기자 | 승인 2026.04.07 14:14 | □ 호수 1055

**호문양수장서 현장설명회와 안전교육 가져
수리시설 운영·안전수칙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**



물 관리 현장설명회



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·봉화지사(지사장 조정옥)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7일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호문양수장에서 물관리 현장설명회와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교육을 가졌다.

이날 교육에는 농업인과 수리시설 감시원, 공사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농업용수 공급 체계와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.

이번 교육은 저수지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영농기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감시원 업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

교육에서는 농업용 수리시설 운영 관리 방법과 현장 안전수칙, 사고 예방 요령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. 또 영농기 물관리 계획과 절차를 함께 안내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특히 참가자들은 호문양수장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장비 운영 상태와 관리 방법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요령을 점검했다.

조정옥 영주·봉화지사장은 “수리시설 감시원은 농업용수 공급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”며 “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관리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오공환 기자 okh7303@hanmail.net